



가스펠
프로젝트

CHRONOLOGICAL
예수로 읽는 연대기 성경공부

“위대한 복음
The Rescue Begins”

12. 나무에 오르는 삭개오
Zacchaeus and the
Sycamore

두번째 이야기 Second Story

07.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The Calling of the Disciples

예수님이 제자로 초청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 Jesus invites ordinary people to follow Him.

08. 거듭남

Born Again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남의 비밀을 배우다. Nicodemus encounters Jesus and learns about the new birth.

09. 쇠해 가는 요한의 사역

The Eclipse of John's Ministry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 | John the Baptist points others to Jesus.

10. 우물가의 여인

The Woman at the Well

예수님이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시다. | Jesus reaches out to the outcasts of society.

11. 배척당하시는 예수님

Hometown Opposition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쫓겨나시다. | Jesus makes plain His identity and is rejected in His hometown.

12. 나무에 오르는 삭개오

Zacchaeus and the Sycamore

예수님이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다. | Jesus has come to seek and save the lost.

이 회색 세로줄이 있는 단락은 일반 교재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Every time you see this bar in this booklet, it indicates the same material is also found in the personal study guide as well.

12 예수님과 삭개오 | Jesus and Zacchaeus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요약 | Summary

이 과에서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죄인이 그 마음에 넘치는 감사를 표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예수님을 집에 모시더니 놀라운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된 결과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관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In this session, we read about Zacchaeus, a man whose example shows us what overflowing gratitude looks like in the heart of a sinner who encounters the love of Jesus. Zacchaeus overcame obstacles to see Jesus, obeyed Jesus' command and welcomed Him into his home, and then showed incredible generosity as a result of his transformation. Understanding Jesus' desire to seek and save the lost, we see ourselves in the story of Zacchaeus and are called to walk in repentance and give generously to advance the gospel.

성경 | Scripture

누가복음 19장 1-10절
Luke 19:1-10

포인트 | The Point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Jesus came to seek and save the lost.

등장인물 | Characters

- 예수님(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Jesus: the eternal Son of God;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 삭개오(부정 축재를 일삼은 세리장,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야 했음)
Zacchaeus: a tax collector known for dishonest practices. He was short in stature, so he climbed a sycamore tree to see Jesus

메세지 좌표 | Plot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신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나누셨으며,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이 과에서는 예수님이 여행 중에 '삭개오'라는 이름의 세리장 집을 방문하신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In previous sessions, we examined Jesus' interactions with different kinds of people He met and ministered to. We looked at His calling of disciples, His conversation with Nicodemus, His meeting a woman at the well, and His relationship with John the Baptist. In our passage today, Jesus travelled to the home of a tax collector named Zacchaeus.

Intro

5-10분 | 5-10 minutes

A.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의 의미를 아십니까? 누군가를 무가치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을 포기했다거나 그 사람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그 사람의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다시 말해서 관계 맺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 누군가를 무시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나요?

유대인들은 삭개오가 불성실하고 부정직한 세리였기 때문에 그를 무시했습니다. 죄 많은 사람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와는 어떤 관계도 맺으려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와 교제하려는 사람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까지 하셨습니다.

- 사람들이 종종 다른 사람의 죄보다 자기 죄가 덜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저 없이 소외된 삭개오에게 다가가 죄 사함의 은총, 즉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저 없이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 ‘회개’라는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Do you know what it means to “write someone off”? Basically, writing off other people means that you have given up on them, want nothing to do with them, or have decided that they no longer have any use for you. In other words, you believe they are unsuitable for you to associate with.

- ***When have you been tempted to “write someone off”? What caused you to respond this way?***

Essentially, because of his profession, disloyalty, and dishonesty, the rest of the Jews wrote off Zacchaeus. They wanted nothing to do with this sinful man, and they couldn’t understand why anyone else would either. Jesus not only called Zacchaeus by name, but also went to his house and spent time with him.

- ***Why do you think it’s sometimes easy to consider yourself as less sinful than other people?***

Despite others’ opinions, Jesus reached out to the outcast and welcomed him into his own family. Jesus did not hesitate to extend a second chance, the gift of forgiveness, to Zacchaeus; neither should we hesitate to reach out to the outcasts, the ones who may seem beyond God’s reach, and lead them to Him, to a second chance, to repentance.

B.

영화 ‘어벤저스’ 시리즈의 두 편은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가 어릴 적 친구인 윈터 솔저 버키를 추적해 그를 예전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스티브와 버키는 동반 입대해 적군 히드라를 물리치기 위한 특별팀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런데 임무를 수행하던 중 버키가 열차에서 계곡으로 추락했고, 모두 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몇 년 후, 그는 히드라에게 세뇌된 채로 강력한 군인 윈터 솔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버키가 파괴를 일삼았음에도, 스티브는 친구 버키가 다시 선히해질 수 있다고 홀로 믿었습니다. 동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캡틴 아메리카는 친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 아무도 믿어 주지 않는 누군가의 말을 믿어 주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어벤져스는 캡틴 아메리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에게 다가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삭개오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삭개오는 구원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Two of *Avengers* movies follow Captain America (Steve Rogers) as he attempts to track down and help his childhood friend, Bucky (aka. *The Winter Soldier*), return to the man he was. Bucky and Steve were best friends, they enlisted in the Army together and served on a special team to shut down the enemy, Hydra. During their mission, Bucky fell and everyone assumed he died. Years later, he emerged as a super-soldier brainwashed by Hydra. He created a lot of destruction, leaving only Steve to believe Bucky could be “good” again. Despite the odds and the adamant protests of his colleagues, Captain America refused to give up on his friend. (*Captain America: The Winter Soldier*, directed by Joe Russo and Anthony Russo, 2014; Burbank, CA: Buena Vista Home Entertainment, 2014, DVD.)

- ***Have you ever wanted to give someone the benefit of the doubt when no one else believed in that person? Describe the situation.***

Just as the Avengers couldn't understand Captain America's need to reach out to someone who seemed beyond hope, neither could the Jews understand why Jesus reached out to Zacchaeus, the tax collector. In their eyes, he was beyond redemption. But to Jesus, Zacchaeus was lost, a soul in need of grace and salvation only Jesus could offer.

HIS STORY

20-30분 | 20-30 minutes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야기
God's story of Redemption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01.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난관을 극복합니다 | ZACCHAEUS OVERCAME OBSTACLES IN ORDER TO SEE JESUS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눅 19:1-4)

누가가 삭개오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보십시오. 삭개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리장이며 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세리를 경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세리도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로마제국의 관리들과 결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가 걷는 세금에 웃돈을 붙여서 걷는 등 각종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자동차로 멀리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속도로 구간마다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징수원이 정해진 요금보다 배나 많이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당황스럽고 화가 나지 않을까요? 당장 도로공사에 신고하고 싶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세리가 백성에게 과도한 세금을 요구해도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신고할 만한 기관도 없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누가의 말대로 '부자'였습니다. 배신자로 낙인찍힌 데다 동족을 억압하며 불의하게 부를 쌓은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흥미롭게도 삭개오가 정말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불행하게도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아마도 착취를 일삼던 세리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그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일부러 막으면서 일종의 앙갚음을 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남자들은 나무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품위 없는 일로 간주되었으나, 삭개오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고, 많은 무리가 길을 메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어린아이 같은 열정으로 나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높이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The story of Zacchaeus is recorded in Luke 19, as Jesus entered Jericho on His way to Jerusalem. Take a look:

1 He entered Jericho and was passing through. 2 And behold, there was a man named Zacchaeus. He was a chief tax collector and was rich. 3 And he was seeking to see who Jesus was, but on account of the crowd he could not, because he was small in stature. 4 So he ran on ahead and climbed up into a sycamore tree to see him, for he was about to

pass that way. (Luke 19:1-4)

Did you notice the characteristics Luke used to describe Zacchaeus? He mentioned two facts: Zacchaeus was the chief tax collector, and he was rich. In Jesus' day, the Jewish people despised tax collectors. Why? Because tax collectors were Jews, too, but they collaborated with the Roman officials who oppressed God's people. What's more, it was common practice for Jewish tax collectors to extort money above the Roman tax, and then they would use the extra money to pad their pockets and live in luxury.

Consider this analogy. If you've ever travelled to Orlando, you're probably familiar with their tollbooths. Every few miles or so, you go through a tollbooth and pay a fee so you can remain on that stretch of highway. Imagine if you knew the toll was \$3, but the collector asked for \$10. Wouldn't you be frustrated? You'd want to report the collector to the government officials.

The tax collectors overcharged, but the people had no other options—no one to turn to in order to report these practices. Furthermore, the people saw how these tax collectors lived. Like the description says, "he was rich." Here we have a man who would have been viewed as a traitor—a man whose earned his wealth through sin and oppression.

What's interesting about Zacchaeus is that he actually wanted to see Jesus. Unfortunately, he wasn't very tall. Perhaps the people who hated tax collectors purposefully blocked Zacchaeus so that he wouldn't be able to get through, maybe as a way of getting back at him for his extortion. Whatever the case, Zacchaeus was determined to see Jesus, and so he climbed up into a tree.

Zacchaeus' decision to climb up into a tree was unheard of in that day. Men didn't climb trees. It was not "dignified" for a man with his clout to do such a thing. But Zacchaeus didn't care. He may have been short, and the crowd may have been in the way, but with childlike enthusiasm he did what he had to do. He positioned himself in a way that would allow him to see Jesus.

02.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하기 위해 사람들의 반대를 무시합니다. | JESUS REACHED OUT TO ZACCHAEUS (삭개오야, 나랑 얘기 좀 하자)

삭개오는 많은 무리로 인해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웠지만, 예수님은 무리의 머리 위로 삭개오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눅 19:5-7)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보고 그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자의 집에서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이 아연실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그와 친분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사랑'과 '용납'이라는 팔로 따뜻하게 안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구경꾼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악행을 일삼는 이기적인 불한당 중 한 명과 시간을 보내시는 것으로 비쳤습니다. '메시아를 자처하는 의로운 선생이 왜 하필이면 악인으로 소문난 사람과 친분을 맺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삭개오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삭개오를 받아 주시리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The crowds made it difficult for Zacchaeus to see Jesus, but Jesus looked over the heads of the crowd and saw Zacchaeus.

5 And when Jesus came to the place, he looked up and said to him, “Zacchaeus, hurry and come down, for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6 So he hurried and came down and received him joyfully. 7 And when they saw it, they all grumbled, “He has gone in to be the guest of a man who is a sinner.” (Luke 19:5-7)

Jesus took notice of this man, acknowledged him, and then expressed the desire to spend time in this traitor’s home.

Not surprisingly, the people that saw this interaction were appalled. To be a guest in someone’s home meant you were “in fellowship” with them. It was like having an outstretched arm of love and acceptance or giving a warm embrace. In the onlookers’ eyes, Jesus spent time with one of the “bad guys”—someone who had done terrible and selfish things as part of his career. Why would a righteous teacher, someone who claimed to be the Messiah, want to spend time in fellowship with a man known for his wickedness?

The crowd’s complaints demonstrated their assumption that Zacchaeus was beyond redemption, and so they were puzzled when Jesus wanted to spend time with such a person. They had written off any possibility that God would or could accept him.

알짚 교리 99: 은혜로우신 하나님 | 99 Essential Doctrines: God is Gracious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과분한 호의를 베풀기를 기뻐하셨습니다(엡 2:8-9). 죄인을 향한 주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던 구원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죄를 보면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등을 돌렸으므로 결과적으로 죽어 마땅합니다(롬 6:23).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인을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은혜를 보여 주셨습니다(고후 5:21).

God’s nature is to delight in giving unmerited favour to those who are undeserving (Eph. 2:8-9). His grace toward sinners is found most clearly in the salvation He has provided through Christ. Because of sin, humanity is undeserving of salvation—all of us have turned our backs on God, and as a result, we deserve death (Rom. 6:23). However, instead of leaving people in their sins, God has demonstrated His graciousness by providing atonement and forgiveness for our sins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2 Cor. 5:21).

03. 예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 ZACCHAEUS DEMONSTRATED REPENTANCE AND FAITH IN JESUS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8-10)

삭개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재빨리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때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그들의 비난이 옳다고 여기며 두려움에 떨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세금을 강탈한 죄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때문입니다!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네 배로 갚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부당하게 얻은 재물에 대해 자진 고백했습니다. 나아가 빼앗은 것을 온전히 반환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삭개오의 말에 예수님은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구원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고 계심을 보여 주신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삭개오도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근거가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응답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으로 나타납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레이 드 아마스(Rey De Armas)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색함’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은혜는 공명정대하지 않다. 은혜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 빛을 갠아야 하는 업보 같은 것도 아니다. 은혜는 절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다. ...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관대함으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된다.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관대해야 한다는 것이바. 삭개오는 관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빈곤한 상태에 있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관대하게 대하셨고, 이로 인해 그는 이제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되찾은 자가 되었다.

고린도후서 7장 9-11절을 읽고, 바울이 말하는 회개의 특징에 관해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회개에서 바울이 열거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나요?

Zacchaeus' response to Jesus involved conviction, confession, and repentance.

8 And Zacchaeus stood and said to the Lord, "Behold, Lord, the half of my goods I give to the poor. And if I have defrauded anyone of anything, I restore it fourfold." 9 And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since he also is a son of Abraham. 10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Luke 19:8-10)

Zacchaeus quickly came down from the tree to welcome Jesus, but maybe he heard the

crowd, got convicted, and froze in fear. He stopped walking and just stood there. I can't imagine what went through his mind. Perhaps it was the fact that he knew that the crowd complained correctly: He was guilty of extortion!

Immediately, without being prompted directly by anyone else, Zacchaeus told Jesus he would give half of his possessions to the poor. If he had exhorted anything from anyone, he would pay back four times as much as he took. Zacchaeus was convicted of his wrongdoing—to the point he willingly confessed his extortion and demonstrated his repentance by vowing to make full restoration to those he had victimized.

Jesus responded by saying that salvation had come to Zacchaeus' house. Jesus spoke about the tax collector's salvation. This moment is extraordinary because Jesus saw this man as a "son of Abraham"—meaning he had a covenant connection to the forefathers of Israel. But Jesus claimed the man's salvation was based on his response to Jesus, not his ancestry going back to Abraham. What's more, saving faith expresses itself in a changed life, which is exactly what happened to Zacchaeus.

As Rey De Armas wrote: "Using Zacchaeus as an example, we can see how stinginess is a sign that we do not know the grace of God. Grace is not fairness. Grace is not a karmic state that allows us to repay God for the wonderful acts that He has done for us. Grace is receiving something that we could never deserve... Because we have been shown generosity by Christ, we understand what it means to have someone be spiritually generous to us in our state of poverty. Zacchaeus was relationally and spiritually poor. Jesus was generous to Him and because of His generosity, Zacchaeus was no longer lost but found." (Rey de Armas, "Do Not Steal," *The Gospel Project: Students, Summer 2014*, 111.)

Read 2 Corinthians 7:9-11, and describe the qualities of biblical repentance. In the brief encounter between Jesus and Zacchaeus, did Zacchaeus possess some of the qualities Paul listed in the passage you just read?

그리스도와의 연결 | Christ Connection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심으로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롬 5:8). 그리고 대속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통해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결코 믿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덕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God demonstrated His love by sending Jesus to seek and save the lost. While we were dead in our sins, Jesus came to die in our place (Rom. 5:8). His substitutionary death, burial, and resurrection fulfilled His mission. God rejoices when sinners hear the gospel and are moved to admit their guilt, confess their sinfulness, and trust in the finished work of Jesus in order to be saved. Never should we believe that people have gone so far that they cannot be reached by the grace of God.

We who have embraced Jesus know this firsthand. And because of our encounter with Jesus, we can express our gratitude to our Saviour by sharing His story to those whom we come in contact with and by sharing our resources with those who are in need.

YOUR STORY

10-15분 | 10-15 minutes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만나는 곳 | *Where your story meets His.*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나와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하면서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 사람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방해하나요?
때때로 우리 태도나 행동이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 삭개오는 자신이 강탈한 돈을 사람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삭개오의 결심은 무엇을 말해 주나요?
삭개오가 극적인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욕과 소유욕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관대하게 변한 것입니다.
-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관대하심을 더 열심히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God's Story has always been designed to connect with your story. It is because of His Story that our stories make sense, have meaning, and carry on into eternity. Use the questions below to help think through how His Story connects with your own.

- ***The crowds got in the way of Zacchaeus seeing Jesus. How do people sometimes get in the way of others seeing Jesus today?***
Sometimes we can get in the way with our attitude over certain things, or even with our actions that may, even though permissible, cause others to stumble.
- ***What are some categories of people we may be inclined to think of as "unreachable" by God's grace? How do we biblically challenge this way of thinking?***
Answers will vary.
- ***Why do you think Zacchaeus thought it was important to repay the people he extorted money from? What does this decision express about his heart?***
It demonstrates that his heart underwent a drastic change from loving money and the things he could acquire with money, to one of generosity on account of having an encounter with Jesus.
- ***How does the gospel influence our level of generosity toward others?***
The more we realize how much we have been given through the love and grace of God, the more we will extend His generosity to those around us.

YOUR MISSION

10-15분 | 10-15 minutes

생각 | Head

삭개오를 미워했던 군중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악하게 대한 사람에게 적의를 품은 적은 없는지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으로 치부한 적은 없는지, 혹은 중독된 사람이나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에게 적의를 갖고 화내는 사람들을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모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나요?
삭개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죄인이라도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채 남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꿈만 좇던 우리를 예수님은 불러 주시고 가족으로 맞아 주십니다.
-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인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어떤 행동이 뒤따라야 할까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Before we judge the crowds too quickly, we should stop ask ourselves if our judgment is hypocritical because we do similar things. What about the times we hold grudges because of other people's sinful actions against us? Or we have written people off as unreachable because they hurt us in some way? Or what about people who pursue addictions, engage in sinful exploits, express hostility or rage toward Christians—have we ever considered them beyond redemption?

- **How should our own salvation help us to understand the salvation of all sinners?**
Stories like this one show us a Saviour who pursues all kinds of sinners. We, too, were selfishly pursuing our own dreams at the expense of others, while neglecting the grace of God. Yet, Jesus called us by name and welcomed us into His family.
- **When we rightly understand God's grace to all sinners, what actions should follow?**
Reconciliation and forgiveness to those who may have sinned against us, compassion toward them knowing that their hearts may still be hardened toward God and His love, and so forth.

마음 | Heart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은혜에 힘입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사랑했고, 부자로 사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자기

재산과 이전의 삶의 방식을 내어 버림으로써 그리스도께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알게 된 사람들이 경험하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주님을 알고부터 내 마음의 소원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 변화된 삶과 마음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We learn from this account what happens when people meet Jesus and are transformed by His grace in their lives. Zacchaeus loved riches and the lifestyle that came from being rich. However, when he met Jesus, something drastically changed. Jesus' grace and mercy toward him transformed the desires of his heart to the point that he was willing to let go of his riches and his former way of life in response to Christ. This is the type of heart change that happens inside of each person who comes to know the grace and mercy of Christ.

- ***How has Christ transformed your life? How have the desires of your heart changed from knowing Him?***
Answers will vary.
- ***Why is a transformed heart and life a good indicator that someone has Jesus as Lord over his life?***
Answers will vary.

행동 | Hands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사람이며,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을 보여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들과 우정을 쌓는 것 때문에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과 복음을 둘 다 나누어 주었던 바울의 사역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살전 2:8).

-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하기 위해 사람들의 반대를 무시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 이 일은 잃어버린 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 관해 무엇을 말해 주나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 어떤 교훈을 주나요?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We must treat every person we meet as someone who might embrace Jesus as Saviour. God often calls us to pursue people we may believe are beyond His saving grace; He calls us to show them the way to salvation in Jesus. We may face opposition for building friendships with lost people, but we can learn from the model of Paul's ministry, as he shared both the gospel and himself with the people he encountered (1 Thess. 2:8).

- ***What is the significance of Jesus ignoring His opposition in order to spend time with Zacchaeus?***

Answers will vary.

- ***What does this say about Jesus' heart for the lost? What implications does this have for the way believers are supposed to live?***

Answers will vary.